

“이젠 TV도 말귀 알아듣네” 시탑재 ‘씽큐 TV’ 출시

딥씽큐·구글 어시스턴트 탑재
음성으로 채널변경·검색 가능
구글연동 IoT 가전제품 제어도
기존제품 比 노이즈 절반 줄여



LG전자 모델이 ‘씽큐 TV’ 라인업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인공지능(AI) 브랜드 ‘씽큐’의 첫 제품으로 ‘씽큐(ThinQ) TV’를 선보인다.

씽큐 TV에는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씽큐’와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돼 사용자는 음성만으로 채널 변경, 콘텐츠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또 맛집 검색 등 구글이 제공하는 정보 검색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식당예약이나 피자주문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오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18’에서 AI을 탑재한 ‘올레드 TV 씽큐’, ‘슈퍼 울트라 HD TV 씽큐’ 등 2018년형 ‘씽큐 TV’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LG 씽큐 TV에는 딥씽큐와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돼 사용자는 음성만으로

화면모드 변경, 채널 변경, 볼륨 조절 등 다양한 TV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또 TV와 사운드바, 블루레이 플레이어, 게임기 등 다른 기기와의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네마 모드로 변경해줘”,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 끝나면 꺼줘”, “게임기에 연결해줘” 등과 같이 음성만으로 TV를 제어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일정, 맛집 검색, 최신 스포츠 경기 점수

확인 등 구글이 제공하는 정보검색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식당예약이나 피자주문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LG 씽큐 TV는 TV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에어컨, 로봇청소기, 스마트 조명 등 구글과 연동되는 IoT 기반의 가전 제품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urn on Air Purifier(공기청정기 켜줘)”라고 말하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

LG전자는 미국을 시작으로 구글 어

시스턴트 적용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올해 올레드 TV 주요모델에 독자 개발한 화질집 ‘알파9’을 장착했다. 알파9는 올레드 TV의 화질 성능을 향상시켜 생생하고 현실감 넘치는 화질을 구현한다.

특히 알파9이 적용된 올레드 TV는 기존제품 대비 노이즈를 절반으로 줄였다. 이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치다.

총 4단계 노이즈 저감 프로세싱으로 화면상의 미세한 잡티를 제거해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또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명암비, 선명도, 입체감 등을 개선해준다. 이를 통해 더 자연스럽게 ‘선명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색상보정 알고리즘은 7배 이상 촘촘하게 나눠 정교해졌다.

LG전자는 나노셀 기술에 ‘폴 어레이 로컬디밍’ 기술을 더한 슈퍼 울트라HD TV도 선보인다.

올해 초 첫 선을 보인 나노셀은 약 1나노미터(nm) 크기의 미세 분자구조를 활용한 기술이다. 극미세 분자들이 색의 파장을 정교하게 조정해, 보다 많은 색을 한층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LG전자는 여기에 폴 어레이 로컬디밍 기술을 더해 LCD TV의 약점인 명암비와 빛 번짐을 개선했다. 로컬디밍은 백라이트의 LED 광원을 부분적으로 켜고 끄는 TV의 명암비를 높이는 기술이다. 화면의 어두운 부분은 LED 광원을 꺼주고, 밝은 부분은 켜주는 식이다.

이밖에 LG전자는 2018년형 올레드 TV와 슈퍼 울트라HD TV에서 돌비비전, HDR 10, HLG(하이브리드 로그 감마) 등 다양한 규격의 HDR 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액티브 HDR’ 기능을 추가했다.

액티브 HDR는 기존 HDR영상에 프레임마다 화질정보를 추가로 넣어주는 ‘인핸스드 다이내믹 톤 맵핑’ 기술로 한층 선명하고 또렷한 화면을 구현한다.

LG전자는 지난해 올레드 TV에만 적용했던 입체음향 시스템 ‘돌비 애트모스’를 슈퍼 울트라HD TV까지 확대 적용한다.

LG전자 HE사업본부장 권봉석 사장은 “인공지능과 더욱 완벽해진 화질로 기존 TV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갑작스런 V30 컬러마케팅... 후속폰 출시 지연? ‘소통경영’ E1, 23년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

LG전자, 라즈베리 로즈 색상 공개
G7 공개지연 원인은 AP수급문제



LG전자가 V30 라즈베리 로즈 색상을 CES 2018에서 공개한다.

/오세성 기자

LG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V30에 컬러 마케팅 전략을 도입했다. 이를 두고 올해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개 작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3일 LG전자에 따르면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CES) 2018’에서 V30 라즈베리 로즈 색상이 공개된다. V30는 지난해 9월 21일 출시 당시 모로칸 블루, 클라우드 실버, 오로라 블랙 색상이 제공됐고 10월 17일 라벤더 바이올렛 색상을 추가로 선보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라즈베리 로즈 색상은 강렬한 채도의 레드 계열 색상이다. LG전자는 “연초 모임이나 파티에 어울리는 진한 색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제품 사양은 이미 출시된 V30와 동일하다.

LG전자 하정욱 단말사업부장은 “강렬하고 사랑스러운 라즈베리 로즈 색상 V30가 고객들의 모바일 라이프에 열정을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월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차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G7 공개가 늦어져 컬러 마케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LG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G 라인업은 매년 상반기 공개된다. G5의 경우 2월 22일, G6는 2월 26일 공개됐다. 두 제품 모두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전시회에 맞춰 공개되며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올해 MWC는 2월 26일 개막될 예정이다. LG전자가 G7을 MWC 기간에 공개할 경우 V30 라즈베리 로즈 모델과의 출시 간격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하게 된다.

통상 신제품 출시를 한두 달 앞두고는 대기 수요가 발생해 기존 제품 판매량이 급감한다. 혹여 기존 제품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신제품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V30 라즈베리 로즈 모델과 G7이 경쟁하는 구도가 그려지는 셈이다.

업계는 G7이 MWC 이후 공개될 예정이어서 V30에 신규 색상을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G7 공개 지연 원인은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수급 문제가 지적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LG전자가 G6를 출시했을 때 높은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구형 AP를 탑재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LG전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보다 퀄컴의 신형 AP인 ‘스냅드래곤 845’를 채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냅드래곤 845는 전작 스냅드래곤 835에 비해 성능이 18% 향상됐고 전력효율은 15% 개선됐다.

이 관계자는 “신형 AP의 경우 초기 수율이 낮아 생산량이 적다”며 “이번 AP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기 물량이 전부 삼성전자 갤럭시S9에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냅드래곤을 사용하는 다른 스마트폰들이 갤럭시S9과 같은 시기에 공개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노동조합, 임금 모든 사항 회사 위임

에너지기업 E1이 노사 화합과 안전 준수에서 업계 모범을 보였다.

E1은 지난 2일 열린 시무식에서 노동조합이 2018년 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했다고 3일 밝혔다.

시무식에서 노동조합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회사가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위임을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회사의 비전 달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노경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E1은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3년 연속으로 임금 협상 무교섭 타결을 이루게 됐다.

또한 E1은 1984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 34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재해를 기록, 3일 무재해 23배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정유·가스업계 및 민간 에너지업계 최장 기록이다.

E1이 23년 연속 임금 협상 무교섭 타결과 34년 무재해라는 대기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구자용 회장을 비롯한 전 직원 간의 끈끈한 신뢰를 쌓아온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 회장은 분기마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경영현황 설명회를 개최해 회사 현황을 공유한다. 이후 참석자 모두가 자유롭



지난 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13층 E1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구자용 E1 회장(왼쪽)과 김충민 E1 노조위원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1

게 발언하며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캔미팅을 연다. 활발한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회사의 미션이 모든 임직원에게 공유된 셈이다.

구자용 회장은 시무식에서 “23년 연속 임금 무교섭 위임으로 상생과 화합의 미래 지향적인 노경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회사를 믿고 맡겨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랑스러운 노경 문화를 이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자랑인 무재해를 지속 실현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이라는 명성을 이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E1은 추후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오세성 기자

SK이노베이션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현장 경영

SK이노베이션 경영진이 ‘딥 체인지 2.0’ 가속을 위해 새해 첫 시작부터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김준 총괄사장과 계열 자회사 사장들이 지난 1일 주력 생산기지 울산CLX를 방문하고 2일에는 서울에 위치한 SK서린사육 전 구성원들과 만나 등 뜨거운 신년 벽두를 보냈다고 3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모든 경영진은 새해 첫 날인 1일 울산CLX를 방문했다. 이들은 각 회사 생산현장을 돌아보며 연말·연휴·연초에도 쉬지 않고 안정조업과 내수·수

출제품 공급에 여념이 없는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준 총괄 사장은 “작년 한 해 안정조업에 최선을 다해준 구성원들의 노력 덕분에 최대 경영실적 경신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울산CLX는 SK이노베이션의 심장임에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울산CLX의 경쟁력을 높여 딥 체인지 2.0을 가속화하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울산CLX는 정유, 화학 등 이른바 ‘산업의 혈액’을 만드는 곳이다. 수직계열화된 공정을 통해 원유에서 휘발유·경유 같은 정유 제품을 추출하고 기초 화학 소재



울산CLX 동력공장 조정실을 방문한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SK이노베이션

부터 화학제품까지 한 자리에서 만들어 낸다.

2일 SK서린사육에서 임직원들을 만난 김준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 구성원이 딥 체인지 2.0 가속화를 위해 뛰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세성 기자

KT 전국대리점 180곳 ‘기가 IoT 전광판’ 출시

KT는 전국 대리점 180개소에 시범 설치 및 검증 과정을 거친 소물인터넷 기반의 ‘기가 IoT 전광판’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가 IoT 전광판’은 고품질 LED 전광판에 소물인터넷(LTE-M) 모듈을 탑재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광고 콘텐츠 변경하고 제어할 수 있다. 또 원하는 광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저작서비스도 제공한다.

‘기가 IoT 전광판’은 41인치 대화면(972×396×79mm)의 크기다. 선명한 고화질 LED를 사용하면서도 기존 제품 대비 60~7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된다. 큰 화면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여러 대의 전광판을 연결해 하나의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멀티 비전’ 기능을 제공한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위해 본사에서 모든 지점의 전광판을 제어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기능도 있다. 기가 IoT 전광판은 이달 중순부터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